



오는 6월 폐관하는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 분관(왼쪽)과 무등갤러리 본관의 민간위탁 세부 일정이 마련되지 않아 장기간 빈 공간으로 방치될 위기에 놓였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시립미술관 금남로 분관·무등갤러리 본관, 예술공간 활용한다더니

대책 흐지부지...도심속 창고될 판

오는 6월 문을 닫는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이하 금남로 분관)과 무등갤러리 본관(일명 무등예술관)을 민간위탁의 예술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지역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금남로 분관과 무등예술관의 운영주체인 시립미술관과 동구청은 이와 관련한 세부 일정을 내놓지 않아 자칫 장기간 빈 공간으로 방치될 위기에 놓였다. 민간위탁·매각 절차는 빨라도 1~2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4월 이전에는 처리가 마무리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 지역 문화예술인들은 이들 문화공간의 경우 예술의 거리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하루 빨리 세부 일정을 확정해 민간위탁 주체를 선정, 시략해 가는 예술의 거리를 되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립미술관·동구청, 6월 폐관 후 구체계획안 없어

지역 문화예술계 “전문 민간 단체에 맡겨라” 주장

현실적 요인에 따른 것. 하지만 3개월이 넘는 지금도 시립미술관은 민간위탁과 관련한 세부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기본적으로 개인이 아닌 기관, 단체에 운영을 맡긴다는 방침은 세웠지만 구체적으로 금남로 분관의 운영 형태 등 세부 사항은 마련하지 못한 것이다.

광주시가 금남로 분관을 민간위탁하기로 한 방침이 알려지면서 현재 광주미술, 대동문화, 한국미술문화발전연구회 등이 입대를 놓고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다.

광주미술은 금남로 분관을 지역 미술인들을 위한 발표무대로 활용하기 위해 입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미 메트로갤러리(지하철 금남 4가역)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상태다. 이를 두고 미술계 일각에서는 “미술인 단체에서 너무 많은 갤러리를 운영할 경우 자칫 권력행사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또 문화, 교육, 출판을 주로 하는 대동문화의 경우 “기획·전시경험이 부족하다”며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임병성 전 광주예총회장(한국화가), 서양화가 황영성씨 등 지역 미술인들로 주축이 된 ‘한국미술문화발전연구회’가 현재 유력한 위탁 단체로 거론되고 있지만 창립된지 1개월밖에 되지 않아 구체적인 계획안을 내놓지 못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역의 한 미술인은 “어떤 단체가 지역 미술인들과 미술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해 금남로분관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지 역량을 고려해 선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각 유예로 도미에 오를 무등갤러리 지역 청년작가들에게 무료로 개방돼 무등예술관은 인근 상업갤러리의 반발로 지난 달 말 폐관기로 결정했다. 당시 폐관을 결정한 예술관 운영위원회는 무등예술관을 용도 폐지한 뒤 예술공간으로 활용하는 단체나 개인에게 매각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최근 건물 소유자인 동구청은 뚜렷한 명분도 밝히지 않은채 공개매각계획을 무기한 연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미술계 일각에서는 “도시공동화로 매각 가격이 낮기 때문에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이후에 값이 오르면 팔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보내고 있다.

이 같은 동구청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 지역 미술인들은 “동구청이 무등예술관을 매각하지 않고 다른 예술 공간으로 활용한다면 또 다시 인근 상업갤러리들이 반발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며 “하루라도 빨리 개인이나 단체에 매각해 예술의 거리를 활성화 시키는 문화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는 6월 이전하는 금남로 분관 구 동구청 2층에 위치한 금남로 분관은 오는 6월 옛 전남도지사 공관을 리모델링한 시립미술관 상록분관(광주시 서구 농성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현재의 전시장은 빈공간으로 남게 된다.

지난해 11월 광주시는 상록분관 개관후에도 현재 금남로 분관의 전시공간을 폐쇄치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시립미술관에 향후 활용 검토방안 수립을 지시했다. 앞으로 분관의 기능이 농성동 상록미술관으로 이전함에 따라 현재의 시립미술관 예산이나 전시인력 등으로 미술관을 운영하기에 어려움이 많다는

‘광주의 색’ 세계화 시켜야 국제무대 진출

광주 찾은 이원일 뉴욕 현대미술관 초빙 큐레이터

“광주는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으로 작업하는 뛰어난 작가들이 많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라는 말처럼 최근 국제미술계는 소재나 기법 면에서 독창성을 추구하는 작가에게 주목합니다. 비엔날레의 도시 광주의 작가들이 세계무대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통적인 소재, 즉 로컬리티(locality)를 글로벌리즘(globalism)으로 끌어 올려야 합니다.”

최근 뉴욕 현대미술관(Museum of Modern Art·모마) 초빙큐레이터와 2008 스페인 세비야(Seville)비엔날레 전시공동감독에 잇따라 임명돼 미술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원일(47)씨가 지난 26일 광주를 찾았다.

2004 광주비엔날레 어시스턴트 큐레이터를 역임하기도 한 이씨는 지역 화단에 대한 조언으로 방문을 열었다. 자신이 맡은 모마의 기획전 ‘스펙터클(spectacle)’의 광주작가 섭의를 겸한 이날 방문에서 그는 “(광주는) 예술

적 가치와 열정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정보력이 뒤떨어져 지역에 고립된 작가들이 많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광주지역 작가들이 지역의 독창성을 국제적인 감각으로 승화시키지 못해 국제무대 진출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광주만의 색깔과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야만 독창적인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현대 미술 흐름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광주의 정신과 서구 현대 미술의 감각, 기법, 기술이 합쳐져 세계 무대에서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면서 “모마 전시와 세비야비엔날레에 광주지역 작가 3~5명을 초대하고, 앞으로도 광주지역 작가를 세계에 알리는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중앙대 회화학과와 뉴욕대 미술대학원을 졸업한 뒤 지난 2004년



폴란드 우치 비엔날레 초청 큐레이터, 타이베이 현대미술관 전시회 초빙감독, 2005년 상하이 젠다이 미술관 개관전 초빙감독 등을 지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화순 대곡리 청동기 유적지서 청동검 2점 발굴

지난 1971년 검, 거울 등 국보급 유물 11점(국보143호)이 발굴된 화순군 대곡리 청동기 유적 출토지에서 청동검 2점이 새롭게 발굴됐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종)은 27일 “유적에서 발견된 관을 옮기던 과정에서 지난 22일 청동검 2점을 찾아냈으며, 보존 상태가 1971년 발견된 청동검보다 양호하다”면서 “관 밑에 청동검을 묻은 것은 당시의 매장 풍습 등을 엿볼 수 있는 의미 있는 발견이다”고 밝혔다.

국립광주박물관은 28일 박물관 교육관에서 청동검에 대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한편 대곡리 청동기 유적은 1971년께 마을 주민이 우연히 발견, 영장수에게 유물을 판매한 것을 영장수가 전남도에 신고해 발견됐다. 당시 유적 일부가 민가에 포함돼 있어 그동안 발굴하지 못하다 지난해 소유주와의 합의를 거쳐 추가 발굴하게 됐다.



화순 대곡리 청동기 유적지에서 지난 1972년 발굴된 청동검.

김선아 피아노 독주회 내달 3일 문예회관

김선아 피아노 독주회가 오는 3월 3일 오후 7시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광주 출신으로 서울예고를 거쳐 연세대 기악과를 졸업한 김 씨는 2001년 도미, 보스턴 대학에서 석사와 박사 과정을 마쳤다. 이번 연주회는 지난 2006년 서울 예술의전당 리사이틀에서 귀국 연주회를 가진 이후 광주에서 처음 마련한 독주회다.

오경태, 마리아 클로드 씨를 사사한 김 씨는 특히 은사인 한동일씨가 운영하는 한동일 피아노 인스티튜트 페스티벌에 꾸준히 참가해 왔으며 보스턴 대학 재학 당시 4차례의 독주회를 열었다.

보스턴 대학 우수 실내와 연주자로 선정됐던 김 씨는 보스턴 대학 단과대 우등상 등을 수상했으며 보스턴 대학 스튜디오 피아노 클래스 강사로도 활동했다. 이번 공연의 연주 레퍼토리는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30번 작품 109’, 스크랴빈의 ‘소나타 4번 작품 30’, 슈베르트의 ‘소나타 작품 960’ 등이다.

김 씨는 현재 전남대·호선대·순천대에 출강,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다. 티켓 가격 1만원. 문의 062-575-5588. /김미진기자 mekim@kwangju.co.kr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메가박스

구.런던역사거리 ☎예매1544-0600

1관 추격자-디지털 (18세) 최고급관
2관 데스노트 : 새로운시작 (12세)
3관 람보4 - 리스트 블러드 (18세)
4관 점퍼 (15세)
5관 바보 (12세)
6관 쿵푸당크 (15세)
7관 워 (18세)
8관
9관 밴티지 포인트 (15세)

광주점 무료팝콘 행사 종료했습니다.
*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게 한함)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은 가족의 편안한 문화공간—

엔터 시네마

총장로 5가 (전화예약) 228-2700

1관 점퍼 (15세)
2관 마지막 선물 (15세)
3관 원스어폰어타임 (12세)
4관 더 게임 (15세)
5관 6년째 연애중 (15세)
6관 대한아,민국씨 (15세)
7관 추격자 (18세)

www.entercinema.co.kr
* 넓고 편안한 국내-옥외 주차장 300대 *
은 가족의 편안한 문화공간

환호시람 영화시람 *예매:www.joycoco.com/1588-7941

컬롬버스 시네마 상무점

상무점 (상무병원과 이마트 사이) 해남점 (무역회관뒷편)

1관 데스노트 : 새로운시작 (12세)
2관 어툰먼트 (15세) 스페이더워그의메일 (전세)
3관 쿵푸당크 (15세)
4관 추격자 (18세)
5관 사랑보다 황금 (15세)
6관 바보 (12세)/ 점퍼 (15세)
7관 점퍼 (15세)
8관 워 (18세)
9관 람보4-리스트블러드 (18세)
10관 밴티지포인트 (12세)

*호남 최대 주차장 *메입삼아 상영합니다
1588-7941
클래스해움(10~12세) 잘린리 상영중
성원전원 별반 (1천여 2만)~연

색깔있는 영화시람 *www.cinusc.com/1544-0070

씨너스 전대

북구보전소 건너편 ☎511-1000

1관 점퍼 (15세)
1관 쿵푸당크 (15세)
2관 밴티지 포인트 (15세)
3관 람보4 - 리스트 블러드 (18세)
4관 어툰먼트 (15세)
5관 데스노트 L (15세)
6관 바보 (12세)
7관 추격자 (18세)

*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
* 무료주차 3시간 *
* 이동통신사 할인혜택 *
* 세너스북자 사무시(오전8시~개방시) *
ARS 전화예매 1544-0070

즐거움이 가득 *www.mc12.co.kr/1588-9101

무등극장

총장로 1가 ☎232-9106

1관 쿵푸당크 (15세)
2관 사랑보다 황금 (12세)
3관 바보 (12세)
4관 밴티지 포인트 (15세)
5관 추격자 (18세)
6관 람보4 (18세)
7관 점퍼 (15세)
8관 데스노트 (15세)
9관 워 (18세)

*리바사이드호텔 무등주차장(구 수협) 3시간 무료주차
*점심 3시간 *
*이동통신사 할인혜택 *
*전원예매 가능 *
*주말에도 포인트 사용 가능 *
인터넷 예매 문의 1588-9101

세로문기름 *www.primuscinema.com/www.jelcinema.co.kr

제일시네마

총장로 3가 ☎ARS 전화예매 227-1960

1관 추격자 (18세)
2관 람보4 (18세)
3관 쿵푸당크 (15세)
4관 바보 (12세)
5관 데스노트 L (15세)
6관 점퍼 (15세)

* 무료주차 3시간 (중주 세무소 옆 호남타워주차장)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 *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